

#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골라'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한 연구\*

소형근(서울신대)

---

## 1. 들어가는 말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는 아시리아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가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포로 생활은 시작되었다. 이후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의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120여 년이 지나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탈로 최소 세 차례의 포로를 경험한다. 마지막 보루였던 남왕국 유다마저 국권을 상실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한 속주로 전락했다. 침탈과 수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고대 이스라엘의 지적 전통의 수호자들은 포로기와 포로 이후에 흩어진 문헌들을 수집하고, 유대교(Judaism)

---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5378).

를 대동시키면서 오늘날 구약성서 경전의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갔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합하면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의 계승자로 자임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자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렘 29:10). 이 예언을 실현 가능케 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설립자 고레스를 또 다른 예언자는 하나님의 목자로(사 44:28),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사 45:1) 칭송했다. 이제 설움과 회한의 시대가 끝나고 바빌론에 강제이주된 자들은 제2의 출애굽을 꿈꾸며 ‘거룩한 땅’으로 돌아온다. 귀환자, 즉 ‘골라’(golah)는 무너졌던 성전터 위에 제2성전을 건축하고(스 6:15),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으며(스 9-10장; 느 5장; 13장), 허물어진 성과 불탄 성문을 다시 수축하기에 이른다(느 6:15). 정경으로서 구약성서 역사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시대로 마무리하고 있다. 사마리아 몰락으로부터 고레스의 칙령까지 약 190여 년은 세계사에서 커다란 변혁의 시기였으며, 고대 이스라엘 또한 국권 상실 및 강제이주와 더불어 귀환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변곡점의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에 대한 상황을 살필 것이다. 남북왕국의 포로기를 다루되 성서 자료와 고대근동 자료를 비교할 것이다. 또한 바빌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 돌아온 귀환자인 ‘골라’(golah) 공동체의 모습들과 디아스포라(diaspora) 유다 사람들의 면면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포로 이후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적 흐름을 찾고자 한다.

## 2. 포로기 상황들

### 1)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를 맞는다.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정통성을 이어갔고(왕상 12:23; 14:21),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국을 건립했다(왕상 12:20; 14:7). 북왕국 설립 약 200년 후에 열왕기 저자의 예견대로 ‘불’(Pul)이라는 불리던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기원전 745-727년)가 북왕국의 이손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다(왕하 15:29). 이 때가 기원전 732년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베가(Pa-qa-ha)가 폐위되고 호세아(A-ú-si-')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sup>1</sup>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사마리아의 므나헴 왕에게서 공물을 받았으며,<sup>2</sup> 이스라엘 거의 모든 거민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들의 재산을 아시리아로 가져갔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은 전쟁 보상금으로 금 10달란트와 은 1000(?) 달란트를 받았다.<sup>3</sup> 구약성서에 기록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강제이주 사건은 디글랏 빌레셀 3세 건축 명문과 시기적으로 일치될 이룬다. 이 포로 사건은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다. 정확히 10년 후인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세르 5세(Shalmaneser V, 기원전 727-722년)가 사마리아를 에워 쌓으며, 정확히 명명되지 않은 “앗수르 왕”(왕하 17:6)에

1 에드윈 R. 달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한정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03.

2 ANET 282-284에 따르면, 디글랏빌레셀 3세는 레반트 지역의 많은 봉신왕들(사마리아의 므나헴을 포함하여)로부터 금, 은, 주식, 철, 코끼리 가죽, 상아, 아마 옷자락, 파란색 모직, 보라색 모직, 흑단 목재, 회양목 목재, 보라색 양가죽, 푸른 깃털의 새들, 말, 노새, 가죽들, 낙타들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3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화 선집』 (강승일 외 5인 옮김), (서울: CLC, 2016), 524-526.

의해 사마리아 성은 점령되어 북왕국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왕하 17:6). 이때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할라와 하블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끌려가는데, 이것이 제2차 강제이주 사건이었다. 살만에세르 5세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 왕이 된 사르곤 2세(Sargon II, 기원전 721-705년)의 전시 명문(Display Inscription)<sup>4</sup>에 따르면 “내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점령했고, 포로로 27,290명을 잡아 왔다. 그들 중 일부를 통해 마차 50승을 타는 부대를 조직하였고, 남은 (거주민들이) 원래 사회적 지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들 위에 내 관리를 임명했으며, 그들이 그 이전 왕이 납부하던 것과 같은 양의 조공을 부과했다. […]”<sup>5</sup>고 알려준다. 그러나 사르곤 2세 명문에 대한 역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시리아 왕실 연대기인 아시리아 차터(Assur Charter)에 따르면 사르곤 2세의 서방 원정이 통치 원년이 아닌, 둘째 해가 되는 기원전 720년경에 있었다고 말하며,<sup>6</sup> 사르곤 2세의 통치 초기에 사마리아를 공격했다고 기록한 코르사밧 연대기(Khorsabad Annals)<sup>7</sup>는 서기관들이 사르곤 2세 통치 초기인 기원전 722/1년의 공백 시기를 감추기 위해 그의 군사적 활동을 거짓으로 기록했다고 해석한다.<sup>8</sup>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김태훈은 살만에세르 5세의 부하 장군으로 사마리아 최후 전투에

4 윗글. 그러나 사르곤 2세의 전시명문에는 선왕이었던 살만에세르 5세가 사마리아 함락 직후에 죽었고, 이후 아시리아 왕권을 장악한 사르곤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5 제임스 B. 프리처드, 윗글, 527-528.

6 H. Winckler, *Altorientalische Forschungen I* (Leipzig: Verlag von Eduard Pfeiffer, 1898), 403-405.

7 A. G. Lie, *The Inscriptions of Sargon II, King of Assyria Part I, The Annals* (Paris: Geuthner, 1929), 4-9.

8 이에 대해서는 타드모르(H. Tadmor)의 글을 참고하라. Hayim Tadmor, “The Campaigns of Sargon II of Assur: A Chronological Historical Study”,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2/1 (1958), 22-40.

참여했던 사르곤 2세가 통치 말년에 자신의 이름으로 살만에세르 5세의 업적을 가져와 기록했다고 주장한다.<sup>9</sup>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한 아시리아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첫째, 사마리아의 함락 시기는 기원전 722/1년이다. 둘째, 사마리아 백성들은 자국 영토를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되었다. 셋째,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 땅에 자신의 신복을 총독으로 임명했으며, 사마리아 땅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구약성서는 강제이주로 빈약한 인구수를 충당하기 위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게 했으며, 이들에게 사마리아 땅을 소유하게 했다고 알려준다(왕하 17:24). 최근 텔 하디드(Tel Hadid)에서 발견된 토판에는 아시리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시리아의 포로 정책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sup>10</sup> 그러나 이 지방의 총독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 2) 포로민 사마리아인의 흔적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초기 기록은 구약성서에도 언급했듯이(왕하 15:29) 디글랏 빌레셀 3세 때이다. 아시리아 연대기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13,520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나,<sup>11</sup> 이들이 끌려간 장소에 대한 정확한 보도는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두 번째 시기는 기원전 722/1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시

9 김태훈, “앗시리아 역사문서와 사마리아의 함락”, 『구약논단』 15 (2003), 195-222.

10 I. Koch et al., “Forced Resettlement and Immigration at Tel Hadid”, *Biblical Archaeology Review* 46/3 (2020), 28-37.

11 M. Cogan, *Bound for Exile* (Jerusalem: A Carta Handbook, 2013), 35.

리아 왕 살만에세르 5세의 기록에도 사르곤 2세의 ‘아시리아 차터’나 ‘코르사밭 연대기’나 ‘전시 명문’에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이주 장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물론 구약성서에는 북왕국의 포로민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왕하 17:6)로 끌려갔다고 알려주지만, 아시리아 문헌에는 포로민 정착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오데드(B. Oded)는 구약성서의 포로민 정착지들(고산, 할라 등)이 사르곤 2세가 건설하려던 새로운 거대 도시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sup>12</sup> 신아시리아 제국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Samaritan)<sup>13</sup>이라 불렀고, 둘째는 그들이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북왕국 출신의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자신들의 이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자들 가운데 신명(神名) ‘야훼’(엘로힘)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sup>14</sup>

12 B. Oded, *Mass Deportations and Deportees in the Neo-Assyrian Empire* (Wiesbaden: Reichert, 1979), 74. 하버 강 계곡(Habor river valley)은 아시리아 제국의 지원을 받아 번영을 누리는 곳이었고, 새로운 정착민들이 지원을 받던 지역이었다.

13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가 아시리아 자료들에 나온다고 해서 그 시기를 모두 기원전 8세기 이후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의 아다드-니라리 3세(Adad-nirari III) 시대의 명문들에 이미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점령된 기원전 722년 이후 ‘사마리아인’(Samaritan)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사마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온 포로민 이스라엘 사람이다. 둘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속주로 이주한 외국인이다. 셋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다. 따라서 기원전 7세기에 살던 ‘사마리아인’(Samaritan)을 언급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참고. I. Eph'al, “The Samaritan(s) in the Assyrian Source”, in M. Cogan and I. Eph'al (eds.), *Ab Assyria, Studies in Assyrian History and Ancient Near Eastern Historiography Presented to Hayim Tadmor*,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1), 36-45.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강후구, “페르시아 시대 유다 인명 연구”, 「구약논단」 84집 (2022), 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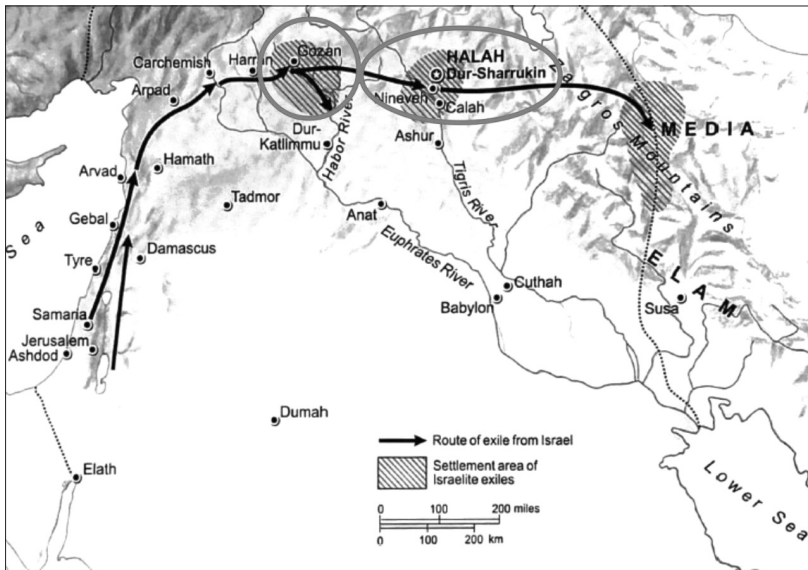
물론 비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히브리식 이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왕국 패망 직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히브리식 이름에 ‘엘’(El)이나 ‘야우’(Yau)나 ‘야후’(Yahu)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모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강제이주 된 ‘사마리아인’ 혹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시리아의 니네베(Nineveh)와 다른 도시들에서 나온 편지들과 문헌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이러한 문헌들에 직접 당사자로서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증인의 신분으로 나오기도 하며, 직책과 함께 나오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히브리식 개인 이름

1. Ahīyau(אחיהו)	파손된 토판에 기록된 ‘궁수’(archer)의 이름
2. Giriyaу(גירי/יהו[?])	사르곤 2세 시대 토판에서 나온 인장 이름
3. Hīlgiyaу(חלקיהו)	사르곤 2세 시대 토판으로 추정되며, 포로로 잡혀 있을지 모를 사람들을 감독관에게 이송하는 과정을 기록한 자의 이름
4. Hoshea(הושע)	사르곤 2세 시대 토판에서 나온 이름
5. Nadbiyaу(נרביה)	기원전 709년 아빕월 20일에 왕실 군단의 전차 운전병 이름
6. Neriyau(נריהו)	고산(Gozan)에서 에살합돈에게 보낸 편지에 잘못 행동한 것으로 기소된 행정 책임자로 회계 담당자 이름
7. Paqahaу(פקחיה)	기원전 709년 아빕월 20일에 왕실 군단의 전차 운전병 슈마-일라니(Shumma-ilani)에게 3명의 노예 매매 시 증인들 중 한 명
8. Paltīyaу(פלטיה)	고산(Gozan)에서 에살합돈에게 보낸 편지에 잘못 행동한 것으로 기소된 ‘네리아’(Neriyau)를 아는 자

15 M. Cogan, 윗글, 39.

위의 표처럼 아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히브리적 개별 이름들(아히야우, 기리야우, 힐기야우, 호세아, 나드비아우, 네리야우, 파바하야, 팔티야우)이 나오며,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멸망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간 사마리아 출신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흔적들도 찾아볼 수 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 시대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신도시 두르-샤루킨(Dur-Sharrukin) 건설이 있었는데, 이 도시 건설작업이 기원전 717년에 시작되었고, 이 공사는 이후 십여 년간 지속되었다.<sup>16</sup> 니네베 지역에서 발견된 서신들 가운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왕에게 보낸 보고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공사 지연에 대한 설명과 공사 중 발생한 문제



기원전 8세기 사마리아 포로민들의 이동 방향과 이들의 아시리아 거주지<sup>17</sup>

16 윗글, 45.

17 M. Cogan, 윗글, 36에서 참고하다.

에 대한 보호 요청 내용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다음 표에는 비트-자만니(Bit-Zamani) 지역 총독 샬루-에무란니(Sharru-emuranni)가 보낸 편지에 두르-샬루킨 지역 건설공사에 목수들과 도공들로 사마리아인을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18</sup>

**Obv.1'-10'**

[...] 나의 주, 왕이 나에게 편지하기를 “두르-샬루킨에서 네가 담당하는 일을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맡기라.” 이에 따라 나는 그 족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목수와 도공을 모두 모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두루-샬루킨에 있는 강제 이주자들에게 지시하게 하려 했으나, 그들(=족장들)이 보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6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사르곤 2세 시대에 옥수수 수확 세금(corn tax)을 내야 했던 성읍들이었으며, 아시리아 수도에 있던 왕실 문서보관자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이 옥수수 수확세를 내야 하는데 아시리아 담당 관리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한다.<sup>19</sup> 이처럼 북왕국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살았으며, 아시리아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던 자유민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야훼 신앙을 계승했는지는 정보 부족으로

18 윗글, 47. 그밖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은 다양한 자료들에서 나온다. “이제 내 주 왕께서 내게 편지하신 대로 나는 그 문제를 어떤 족장들과도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목수들과 도공들을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임명했습니다.”(Obv. 4-13).

19 B. Becking, *The Fall of Samaria: An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Study* (Leiden: Brill, 1992), 107-108. 백킹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이 옥수수 수확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아시리아 담당 관리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수입이 없어 더 이상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알 수 없다.

### 3) 남왕국 유다의 포로 상황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 강대국 아시리아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남왕국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와 종주권 조약(suzerainty treaty)을 체결하고, 디글랏 빌레셀 3세와 기타 아시리아 왕의 봉신왕이 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구약성서에 따르면 남왕국의 몰락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였고, 우상숭배로 범죄하여 야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려 예루살렘을 썩어 버리며, 유다 백성의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기기로 결심한다(왕하 21:11-14). 열왕기에서 극찬을 받던 요시아 왕(왕하 23:25)마저 므깃도에서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이후 남왕국의 역사는 나락으로 치달았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이집트 파라오 느고 2세에게 감금되었고(왕하 23:33), 은 100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지불했음에도 그는 이집트에 볼모로 끌려간다(왕하 23:33).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기원전 605년 카르케미시(Carchemish) 전투에서 승리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봉신왕이 되었으며(왕하 24:2), 기원전 601년에 이집트가 강성해지자 여호야김은 바빌론 왕을 배반하게 된다(왕하 24:1).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은 통치 석 달 만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왕하 24:12, 기원전 597년), 이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늦 사슬에 결박되어 바빌론으로 강제이주되었다(왕하 25:7). 남왕국이 멸망한 후에 유다 땅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한 행

---

20 구약성서의 사가는 유다 왕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이대이라”(왕하 16:7)면서 아시리아 왕에게 굴복하는 종주권 조약을 암시하고 있다.

정구역이 되었으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지방에 ‘총독’ 그달리야(Gedaliah)를 임명했다(왕하 25:22; 렘 40:7). 그달리야가 미스바(Mizpah)에서 총독직을 수행할 때 다윗계의 후손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야를 죽이자(왕하 25:25)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남은 백성들을 또다시 바빌론으로 강제이주 시켰다(렘 52:30). 그러나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민 강제이주에는 차이가 있다. 아시리아 제국은 사마리아 지역에 인구의 교차이주정책을 실시했던 반면, 바빌로니아 제국은 유다 백성을 강제이주시켰을 뿐 바빌론 지역의 거민을 유다 예루살렘에 이주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민족 정통성 차원에서 성서 저자들의 커다란 신학적 해석을 낳게 된다. 바빌론 포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다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총독 그달리야가 살해된 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 땅에 다시 총독을 파송했는지, 아니면 느부사라단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 유다 지방을 관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선 유다 땅의 규모는 바빌론 포로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네겝 지역과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은 에돔 사람들이 차지했고(읍 19; 겔 35:10; 36:5; 렘 32:44), 유다의 서쪽 땅인 쉘펠라(Shephelah) 지역은 페니키아와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며(읍 19; 겔 26:2; 25:15),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은 암몬의 소유가 되었다(렘 49:1).<sup>21</sup> 유추해 보면, 포로 이후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할 때 주변의 많은 대적이 일어나 반대했고(스 4:6-22),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재건에도 많은 방해자들(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암몬의 총독 도비아와 아라비아의 지도자 게셈)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유

21 라이너 알베르츠,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배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136.

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통치자(총독)에 예속된 지방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sup>22</sup>

#### 4) 포로민 유다인의 흔적들

열왕기하 24장 15절은 기원전 597년에 남왕국 유다 왕 여호야긴(Jehoiachin)<sup>23</sup>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고 보도한다. 여호야긴 왕의 바빌론 포로는 역대기(대하 36:10)에도 에스더서(에 2:6)에도 예레미야서(렘 24:1)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기원전 586년에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들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왕하 25장; 대하 36장; 렘 52장). 유다 왕들의 포로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보도들은 바빌론 지역에서 발견된 행정 문서에도 나온다. 예를 들면, “유다 왕 여호야긴(Ia-'ú-kin)”<sup>24</sup>이라는 분명한 호칭과 “왕의 아들들”과 “유다 사람들”이라는 포로민에 대한 기록이 바빌론 문헌 가운데서도 볼 수 있으며(바빌론 28122, 앞면 29-33; 바빌론 28178, 앞면 ii 38-40),<sup>25</sup> 또한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했던 나보폴라사르의 통치 마지막 해부터 그의 후계자였던 느부갓네살 2세의 통치 11년까

22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74집 (2019), 342-364.

23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은 “여고냐”(Jechonias)이다.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된 기원전 580년경으로 추정하는 아카드어 췌기문자 비문에 따르면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 포로민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들이 바빌론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24 텔 베이트 미르심(Tell Beit Mirsim)에서 발견한 ‘야우킨’(Yaukin)이라는 이름의 인장이 있는데 이 이름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아닌,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보기도 한다. 참고. 허셜 생크스 엮음, 『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로마인의 성전 파괴까지』 (김유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300.

25 제임스 B. 프리차드, 윗글, 539.

지 기록된 토판에도 예루살렘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26</sup> 또한 바빌론 문서에는 유다 왕 여호야긴의 다섯 아들들을 돌보는 자로 카나야마(Qanayama)라는 이름이 인장(bulla)에 나온다.<sup>27</sup> 카나야마는 히브리어 ‘카나브’(קנב)에서 기원된 것으로 구약성서의 엘가나(אלגנא)라는 이름에 해당한다. 유다에서 강제이주 된 일부 사람들(왕족들과 귀족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유다 사람들은 바빌론 지역에서 포로민으로 살지 않았다.<sup>28</sup> 이에 대해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알려주고 있다. 이들은 바빌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며,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으며,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렘 29:5-6).<sup>29</sup> 즉,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빌론 왕실에서 땅을 불하받아 경작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바빌로니아 제국에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자들이었다.<sup>30</sup> 바빌론 자료에 따르면 강제이주 된 자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었고, 신분상 차별받던 자들도 아니었다. 이들은 바빌론 남동부에 위치한 ‘아브라함의 집 도시’(Bit-Abinām)라는 유대인 사회적 연맹체를 구성하여 살았고,<sup>31</sup> 또한 이들은 ‘하트루’(ḥatru)라 불리는 경제 공동체를 통해 땅을 활용하여 경제

26 윗글, 538. “제7년, 키슬레브월: 아카드 왕이 그의 군대를 하티 땅으로 이동시켰고, 유다 (la-aḫu-du)의 도시를 포위하였다. 아달월 2일에 왕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새 왕을 임명하였고, 무거운 조공을 거두어 바빌론으로 돌아왔다.”(ANET 563-564).

27 TUAT I/4, 412-413; HTAT, 426-430.

28 허셜 생크스, 윗글, 297.

29 바빌론 근처 니푸르 지역에서 발견된 무라슈 문서나 최근 출판된 알 야후드와 바빌론 동쪽 비트 나샤르(Bit-Našar)의 문서들에 따르면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유배자들에게 왕실 토지를 경작하도록 주었으며, 그 땅들 중에 “유다 밭”(DJE 24+25)이라 불리는 땅은 관계 수로로 용수를 공급받아 세습 임차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양도하기도 했다. 참고. 베르트 U. 쉬퍼, 『간추린 고대 이스라엘 역사』 (오민수 옮김) (서울: CLC, 2024), 99

30 B. Oded, “Judah and the Exile”, in *Israelite and Judeans History*, ed J. H. Hayes and J. M. Miller (Philadelphia: Westminster, 1977), 483.

31 베르트 U. 쉬퍼, 윗글, 99.

적 이득을 창출하던 자들이었다.<sup>32</sup> 강제이주 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야훼 신앙을 유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에 끌려간 자들은 이방지역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회당은 기원전 2세기 이전에는 없기 때문에 회당은 포로기 또는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소위 신명, 즉 신성사문자(Tetragrammaton)인 ‘야훼’(YHWH)가 들어간 이름을 살펴보면 유다 사람들의 바빌론 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보통 ‘야훼’를 상징하는 음역 표기가 *ia*; *ia-a*; *ia-a-ḥu(uú)*; *hu-ú*로 사용되지만, 야훼 신명을 사용하는 두 번째 구성요소로 *-ia-a-ma*; *ia-ma* 그리고 자음 C를 포함한 *Ci-am-ma*; *Ca-(‘)a-ma*; *Ce-e-ma*로 쓰기도 한다. 히브리어 ‘h’는 아카드어 ‘ḥ’로 대체되며, 히브리어 ‘-yaw’는 발음상 바빌론어 ‘-yama’로 기록한다.<sup>33</sup> 예를 들면, 열왕기상 14장 5절의 ‘아히야’(Ahijah)와 유사한 바빌론식 이름은 ‘아히야마’(Ahiyama)인데, 이 인물은 왕실 상인(royal merchant)으로 일 하던 자였으며, 카샤야(Kashaya)의 혼례 계약의 증인으로도 나온다. 또한 히브리식 이름 ‘여호람’(Jehoram)이 바빌론식 이름 ‘야후람’(Yahuram)으로 나온다. 한 문서에는 야후람의 아들이 기원전 551/0년에 시파르(Sippar) 부근에 있던 태양신 신전 영지의 경작을 위해 한 구획의 땅을 받아 이 땅을 경작한 후에 그는 수확의 1/4과 십일조를 신전에 바쳐야 했으며, 또 다른 문서에는 기원전 545년에 그가 수확에 대한 대가

32 M. W. Stolper,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šû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72-79.

33 R. Zadok, *The Jews in Babylonia during the Chaldean and Achaemenian Periods according to the Babylonian Sources* (Haifa: University of Haifa, 1979), 8-11.

로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sup>34</sup> 그밖에도 최근 고시장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의 도시로 ‘알 야후두’(Al Yahudu)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도시는 느부갓네살 통치 33년(기원전 572년)부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통치 9년(기원전 477년)까지 유대인들의 초기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명이었다. 이 문서에는 자유롭게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야후아자리’(Yahu-azari), ‘나다비아마’(Nadabiyama), ‘샤마흐야마’(Shamahyama) 등이 나온다. 또 다른 자료에는 세금 징수원(tax collector)으로서 ‘아브다야후’(Abdayahu)와 또 다른 매매를 위한 기록 자료에는 ‘아히야캄’(Ahyaqam), ‘압두야후’(Abdu-Yahu), ‘네리아마’(Neriyama) 등이 언급되고 있다.<sup>35</sup> 이 히브리식 이름의 소유자들을 모두 유대에서 바빌론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자들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토판들의 기록이 시기적으로 바빌론 포로 시기와 그리 멀리 않은 기원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 성읍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들이라는 점이 과거 남왕국 유대 사람들로 추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3. 포로 이후 상황들

#### 1) 포로 귀환의 시기들

구약성서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자국 영토로 돌아오는 시점(始點)을 한결같이 고레스 칙령으로 돌린

34 M. Cogan, 윗글, 146.

35 윗글, 147-150.

다(대하 36:22-23; 스 1:1-3). 이들의 귀환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즉, 귀환의 포문을 연 것이 고레스 칙령이었을 뿐, 강제이주 된 자들은 이후 다양한 시기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첫 번째가 세스바살(Sheshbazzar)이 주도한 귀환이다. 그 시기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해인 기원전 538년으로 짐작한다. 세스바살은 유다 공동체의 ‘총독’이었다(스 5:14). 즉, 바빌론 포로 이후 유다 지방의 첫 번째 총독이 세스바살이었으며, 그는 과거 느부갓네살 2세가 가져갔던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역할을 수행했다(스 1:7-11). 두 번째는 스룹바벨(Zerubbabel)을 중심으로 하는 귀환 시기이다(스 2장; 느 7장). 스룹바벨 또한 유다 지방의 총독(학 1:1, 14; 2:2, 21)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이 죽거나, 혹은 그의 임기가 만료되어 세스바살의 대체자로 볼 수 있다.<sup>36</sup> 스룹바벨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다(스 3:8; 4:3). 예루살렘 제2성전 건축의 기초가 스룹바벨과 함께 시작되었으나(스 3:8), 성전공사가 끝나기 전에 스룹바벨은 사라진다.<sup>37</sup> 스룹바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제2성전공사가 재개되는 동안 스룹바벨은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sup>38</sup> 세 번째는 아닥

36 스룹바벨이 세스바살과 함께 귀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에스라 2장 2절과 느헤미야 7장 7절이 증명하고 있다.

37 Theodore J. Lewis,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Zerubbabel", in *Seeking Out the Wisdom of the Ancients: Essays Offered to Honor Michael V. Fox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308-309.

38 성전공사 마무리에 대한 언급이 에스라 6장 15절에 나오고, 에스라 6장 14절에 성전공사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 언급되는데, 여기에 ‘스룹바벨’은 사라지고, 그를 대신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나온다. 이들은 포로 이후 초기 스룹바벨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마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400;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510-511;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74집 (2019), 342-364; 송기찬, “스룹바벨의 실종 사건을 통한 제2성전시대 메시아 사상의 발전”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천

사스다 왕 통치 제7년에 에스라(Ezra)와 함께 한 귀환이다(스 7:7).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1,513명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에 왔으며(스 8장), 그는 골라(golah) 공동체를 위해 토라를 낭독하고(느 8장),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었다(스 9-10장).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Nehemiah)와 함께 한 귀환이다(느 2:1).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선 지도자였으며, 후에 총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느 5:14). 에스라-느헤미야서는 공식적으로 네 차례 귀환을 기술하지만,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룹을 네 번의 귀환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귀환자들 중에 출신성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스스로를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하지만(스 2:61-62; 느 7:63-64), 이들 중 학고스 자손만 후에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받고(느 3:4, 21) 나머지 가문은 포로 이후 제사장으로서 활동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sup>39</sup> 이들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귀환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환자들 중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 성읍 출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히브리식 이름이 빈번하게 나오는 무라슈(Murašû) 문서가 발견된 지역이 바빌론 인근 니푸르(Nippur)였고,<sup>40</sup> 바빌론 성읍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시파르(Sippar)에서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 관련 점토판들이 발견되었으며,<sup>41</sup>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모객한 장소가 가시냐(Casiphia) 지방이었고(스 8:17), 귀환자들 가운데 정체 모를 텔멜라(Tel-Melah), 텔하르샤(Tel-Harsha), 그룹(Cherub), 앓단(Addan), 임멜(Immer) 지방에서 온 자

안: 호서대학교, 2022).

39 H. G. M. 윌리엄슨, 『에스라-느헤미야』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131.

40 M. W. Stolper, 위글.

41 김영진, “신바빌론 신전의 경제활동”, 『서양고대사연구』 26권 (2010), 31-53.

들도 있었다(스 2:59; 느 7:61). 예언자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곳이 그밭(Kebbar) 강가였고(겔 1:3), 그는 종종 텔아비브(Tel-Abib)에 머물곤 했다(겔 3:15). 따라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와 횡수를 논할 때 에스라-느헤미야서를 기준으로 최소 네 차례를 말하지만, 그 이상의 귀환 횡수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 2) 유다 지방의 포로 이후 상황

바빌론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구약성서 본문은 에스라-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도가 될 수 있다.<sup>42</sup> 바빌론에서 돌아온 초기 골라 공동체 내부에는 다윗 왕조 회복을 주창하던 그룹과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중심주의를 표방하던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sup>43</sup> 골라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제2성전을 건축해야만 했고, 다윗 왕조 회복을 위해서는 다윗계 후손이 국권을 회복하고 잃었던 영토를 되찾아야만 했다. 예언자 학개의 최우선적 관심사는 성전건축이었다. 지금의 빈약한 경제 상황이 성전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한 결과이며(학 1:2-9), 성전이 완공되면 이런 상황이 바뀔 것임을 그는 예언했다(학 2:15-19). 학개는 성전건축 재개를 위한 선포 말미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을 것이고(학 2:21-22),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추가했다(학 2:23). 학개는 “인장”(학 2:23)을 언급하면서 골라 공동체 내부에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왕정 신학을 바탕으로 한 메시아

42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요소와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서 제외시켰다. 다니엘 1-6장은 바빌론 시대를 기술하는 반면, 다니엘 7-12장은 묵시문학으로써 헬레니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포로기와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한정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43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165-170.

적 기대감까지 추가하며 유도했다(학 2:23). 예언자 스가랴 또한 스룹바벨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심이 더 많았다. 스가랴 3장에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한 후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스 3:3-4). 여기서 “죄악”은 여호수아의 죄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수난당한 유다 전체의 죄를 상징한다.<sup>44</sup> 그런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야훼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다(스 3:5).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정결의식이 마친 후, 이제 비로소 스가랴는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의 손으로 성전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예언한다(스 4:9). 그러나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스 4:14). 이 또한 스룹바벨만으로 스가랴 4장을 끝낼 수 없어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추가한다. 성전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스룹바벨이 사라짐으로 스가랴서는 본래 왕이 써야 할 면류관, 즉 즉위식의 주인공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있다(스 6:11, 14). 이는 다윗 왕조 회복 동력이 스룹바벨의 사라짐으로 이미 포기되었음을 감지한 의미심장한 메타포이다.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가 지나면서 골라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신정론적 흐름을 이어간다. 물론 제사장계열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유다의 ‘장로’(זקני) 그룹이 있긴 했지만, 이들은 포로 이후 구약성서 본문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본문에는 ‘장로’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으며, 에스라-느헤미야 본문에는 ‘장로’가 제2성전건축과 관련된 본문(스 5:5, 9; 6:7, 8, 14)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후 제사장이 주도하는 신정론적 분위기에 대항하는 자들이 등장했으니 그들

44 차준희, 유윤중, 『학개/스가랴/말라기』(성서주석 3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00.

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저자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엄격하고, 과격한 율법주의자로 알려져 있다.<sup>45</sup> 신명기 7장 1-4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고 혼인한 경우에 오경의 법은 처벌에 대해 침묵한다. 하지만 골라 공동체의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이런 규정을 뛰어넘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개혁을 단행한다(스 10장; 느 13:23-31). 신명기 법에 대한 과격한 해석인 셈이다.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과격함’과 ‘엄격함’을 자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등에 업고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제사장 그룹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레위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에스라는 제사장 신분(스 7:1-5)임에도 불구하고 나팔절에 성전이 아닌, 성전에서 가장 먼 예루살렘 성 남쪽 수문 앞 광장에서 토라를 낭독했으며(느 8:1, 3),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을 제외하고는 당시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교류한 흔적이 없다(참고, 느 3장).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에스라의 나팔절 토라 낭독 후 자복하는 기도회를 레위 사람들이 주도했고(느 9:4-38), 과거 토라 교육이 제사장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 레위 사람도 토라를 교육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느 8:9). 또한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암몬의 총독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아십으로부터 성전 방을 얻은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을 내던지고, 성전 방을 정결케 했으며(느 13:4-9),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성전을 떠날 때도 느헤미야는 이들을 다시 불러 성전에서 일하도록 했다(느 13:11). 에스라-느헤미야서는 레위 사람들을 지위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종속시키지 않았으며, 신분에 있어서 어떤

45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Michigan: Grand Rapids, 2009), 116.

차별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sup>46</sup>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따르면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 내부에서 레위 사람들의 위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포로 이후 대표적인 예언자인 학개와 스가라는 다리오 왕 제2년(기원전 520년)과 제4년(기원전 518년)에 활동했던 자들이다. 제2성전건축이 기원전 516년에 마무리되었기에 이 두 예언자는 성전건축완공 이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학개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은 후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고 스룹바벨을 세워 ‘왕권’을 상징하는 인장을 삼켰다고 예언했다(학 2:21-23). 스가라 또한 ‘삭’이라 이름하는 자가 야훼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한다(슥 6:12). 여기서 “삭”(שָׁא)은 메시아적인 인물로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표현이다.<sup>47</sup> 그러나 골라 공동체를 향해 외쳤던 예언자 학개와 스가라의 예언은 실패로 돌아갔다.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 안에 불었던 민족주의적 성향이 페르시아 정부의 개입으로 허무하게 끝난 것이다. 제2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골라 공동체를 이끌던 스룹바벨, 학개, 스가라가 사라지고 성전봉헌식에 대한 웅장하면서도 세밀한 행사보고가 없었다. 예언자들의 구원 약속이 성취를 이루지 못하자 예언이 점차 ‘종말론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sup>48</sup> 이로써 예언은 묵시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 3) 이집트 디아스포라의 포로 이후 상황

고대 이스라엘이 세계 열강들로부터 국토를 유린당할 때 주변 지역들로 흩어졌던 자들에 대한 흔적들이 흐릿하지만 남아 있다. 이

46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집 (2007), 112-128.

47 강승일,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문제: 고대 이스라엘 예언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6/1 (2014), 13-36.

48 라이너 알베르츠, 윗글, 171.

집트 남부에 위치한 아스완(Aswan)으로 흐르는 강줄기에 엘레판틴(Elephantine) 섬이 있는데 이곳은 고대 대상(大商)들이 숙박하던 장소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들과 문화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다.<sup>49</sup> 그런데 이 엘레판틴 지역에서 기원전 495년부터 399년 것으로 추정되는 52개의 파피루스와 300개 이상의 오스트라카(Ostraca)가 발견되었는데,<sup>50</sup> 흥미로운 것은 이 파피루스와 오스트라카를 기록했던 자들이 자신들을 ‘유다 사람’(יהודי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언제부터 엘레판틴 섬에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sup>51</sup> 이들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후예임에는 분명하다. 이 엘레판틴 지역에는 주둔군이 있었는데 그 주둔군의 사령관이 ‘유다 사람’이었고, 이들의 종교적 성향 또한 ‘유다 사람’이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곳에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신이었던 야훼를 숭배하는 ‘야후’(Yahu/YHW) 성전이 있었다는 기록이다(TAD 1999; 4, 7-9). 그러나 기원전 410년에 당시 총독 비드란가(Vidranga)가 이집트 크눔(Khnum) 신 숭배자들과 합세하여 이 ‘야후’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파괴했으며,<sup>52</sup> 이후 유다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무너진 ‘야후’ 성전을 재건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파피루스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레판

49 B. Lang, “Elephantine”, (RGG<sup>4</sup>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194.

50 R. Albertz,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BE 7) (Stuttgart: Kohlhammer, 2001), 68, 85-86.

51 이들이 엘레판틴 섬에 와서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해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첫째,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하면서 이주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요시아 시대에 파라오 프삼메티크 1세를 돕기 위해 파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남왕국 유다 멸망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G. W. Ahlström,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751-760; 원용국, “엘레판틴 파피루스 사본 연구”, 「신학지남」 49 (1982), 133-154; S. G. Rosenberg, “The Jewish Temple at Elephantine”, *Near Eastern Archaeology* 67 (2004), 4-13.

52 B. Porten,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2<sup>nd</sup> revised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42-143.

틴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들은 유일신앙(monotheism)으로 야훼를 숭배한 것이 아니었다. 엘레판틴의 유다인들은 야훼 외에도 ‘아낏 벤틀’(Anat-Bethel), ‘에셈 벤틀’(Eshem-Bethel), ‘아낏 야후’(Anat-Yhw) 등을 섬겼다.<sup>53</sup> 즉, 이들은 단일신앙적 종교관을 가진 혼합주의적 토착화 신앙의 소유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레판틴 파피루스에는 구약성서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안식일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 이들이 구약성서 토라에 근거하여 이 절기들을 이행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오경의 절기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20km 떨어진 엘레판틴 섬 주민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토라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엘레판틴 파피루스 자료 가운데 특이할 만한 정보로 기원전 408년에 유다 지방을 통치하던 총독이 ‘바고히’(Bagohi)였으며, 이 시기에 산발랏의 두 아들 들라야(Delaiah)와 셀레마야(Shelemaiah)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sup>54</sup>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이집트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삶의 양태를 알려주는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엘레판틴 파피루스는 그나마 정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4) 메소포타미아 디아스포라의 포로 이후 상황

페르시아 시대를 대표하는 문헌들 가운데 하나가 무라슈 문서(Murašû Archive)다. 무라슈 문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환경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 1888년부터 1900년 사이에 바빌론 근교에 위치한 니푸르(Nippur) 지역에서 췌기문자로 기록된 약

53 R. Albertz, *위글*, 86.

54 허셜 생크스, *위글*, 327.

330개의 손상되지 않은 토판들(tablets)과 400개 이상의 파손된 토판들 및 파편들(fragments), 그리고 20개의 진흙으로 된 인장 태그들이 발견되었다. 이 문서들은 기원전 5세기 후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기원전 465-423년)와 다리오 2세(기원전 423-404년)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기원전 404-358년) 시대에 작성된 것이다.<sup>55</sup> 무라슈는 한 가문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무라슈 가문 4대에 걸쳐 작성된 사업 기록 모음집에 해당한다. 1세대인 하틴(Hatin)은 이 문서에서 회사 경영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오지 않는다. 2세대인 무라슈(Murašû, 기원전 약 500-445년)는 두 번 언급되는데, 아닥사스다 1세 17년에 작성된 부채 기록에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20년에 부동산 소송 합의와 관련된 채권자로 등장한다.<sup>56</sup> 3세대는 무라슈의 세 아들로, 엔릴 하틴(Enlil-hatin, 기원전 454-437년)과 엔릴 슈 잇딘(Enlil-šum-iddin, 기원전 445-421년)과 나퀴투(Naqqitu, 기원전 436년)이다. 4세대는 엔릴 하틴의 아들 림무트 니누르타(Rimut-Ninurta, 기원전 429-414년)와 엔릴 슈 잇딘의 두 아들 무라슈 2세(Murašû, 기원전 424-416년)와 엔릴 하틴 2세(Enlil-hatin, 기원전 419년)이다. 무라슈 문서의 대부분은 3세대에 해당하는 엔릴 하틴과 엔릴 슈 잇딘, 그리고 4세대에 해당하는 림무트 니누르타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무라슈 문서는 대체로 부동산 사용과 관리에 대한 법률과 땅과 동물과 기구와 수로 임대 및 하트루(혹은 하드루)에 대한 규정 등을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무라슈 문서에 알 야후두(*Al-Yahudu*)라는 명칭이 나오고, 또한 히브리식 이름들이 대거 등장한다.<sup>57</sup> 강후구에 따르면 무라슈 문서에 나오는 유

55 M. W. Stolper, *윗글*, 1.

56 윗글, 19.

57 L. E. Pearce, "Judean: A Special Status in Neo-Babylonian and Achaemenid Babylonia?", O. Lipschits et al.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Achaemenid Period: Negotiating Identit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272-273.

다인 인명은 조상명 41개와 본인명 60개로 전체 101개가 나오고, 알 야 후두와 그 주변 지역에서 나온 자료들에는 조상명 287개와 본인명 261개로 전체 548개가 발견되고 있다.<sup>58</sup> 이 히브리식 이름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큰 것은 니푸르 지역에 유다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로 불리던 ‘알 야후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알려주는 바대로 포로민 유대인들에게 ‘유다(이스라엘)의 장로’(겔 8:1, 11, 12; 14:1; 20:1, 3)라는 신앙 공동체의 주도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빌론에 강제이주 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sup>59</sup> 즉, 알 야후두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비록 바빌론에 강제이주 된 자들이었으나 하트루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렸고,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 무라슈 문서는 포로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와 포로 이후 시대사를 살펴보았다.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몰락으로 인한 포로민으로서 삶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아가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모습을 흐릿하지만 추적해 보았다. 북왕국은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사마리아 공격과 살만에세르 5세의 사마리아 함락으로 사마리아인의 강제이주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고산과 할라 지역으로

58 강후구, 윗글, 15-26.

59 무라슈 문서의 유대인 인명에 대해서는 강후구의 글을 참고하라. 윗글, 16-17.

끌려가 두르-살루킨 지역에서 목수와 도공으로 살아가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농민으로, 전차 운전병으로, 회계 담당자 등으로 살아갔다. 즉, 이들의 대부분은 활동의 자유가 있던 자유민의 신분이었다. 남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의 등장으로부터 유다인의 강제이주가 본격화 되었다. 강제이주 된 유다인들은 바빌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집 도시’(Bir-Abirām)나 ‘알 야후두’(Al-Yahudu) 등에서 유대인 사회적 연맹체 혹은 유대인 집단촌을 형성하며 ‘하트루’(hatru)라 불리는 경제 공동체를 통해 자유민의 신분으로 살았다.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빌론 지역에서 최소 네 차례 이상의 귀환 그룹이 있었고,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 내부에는 다윗 왕조 회복을 꿈꾸던 그룹과 제사장 나라를 표방하는 그룹이 있었다. 신정론적 흐름으로 제사장의 권위가 강화될 무렵에 레위 사람에 대한 위상이 격상되던 시대상을 볼 수 있었고, 예언자들의 구원 예언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자리를 묵시에게 자리를 내주며 골라 공동체는 종말론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집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을 엘레판틴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피루스를 통해 볼 수 있었으며, 메소포타미아 디아스포라의 삶을 페르시아 시대 대표적인 문서 무라슈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강승일,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문제: 고대 이스라엘 예언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6/1 (2014), 13-36.  
 강후구, “페르시아 시대 유대 인명 연구”, 『구약논단』 84집 (2022), 10-42.  
 김영진, “신바빌론 신전의 경제활동”, 『서양고대사연구』 26권 (2010), 31-53.  
 김태훈, “앗시리아 역사문서와 사마리아의 함락”, 『구약논단』 15 (2003), 195-222.  
 라이너 알베르트,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배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 \_\_\_\_\_,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마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 (3판)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집 (2007), 112-128.
- 베르트 U. 쉬퍼, 『간추린 고대 이스라엘 역사』 (오민수 옮김) (서울: CLC, 2024).
-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74집 (2019), 342-364.
- 송기찬, “스룹바벨의 실종 사건을 통한 제2성전시대 메시아 사상의 발전”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천안: 호서대학교, 2022).
- 에드윈 R. 딜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한정건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원용국, “엘레판트 파피루스 사본 연구”, 『신학지남』 49 (1982), 133-154.
- H. G. M. 윌리암슨, 『에스라-느헤미야』 (WBC 16)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5인 옮김), (서울: CLC, 2016).
-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 차준희, 유윤종, 『학개/스가랴/말라기』 (성서주석 3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허셜 생크스 엮음, 『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로마인의 성전 파괴까지』 (김유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 Ahlström, G. W.,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751-760.
- Albertz, R.,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BE 7) (Stuttgart: Kohlhammer, 2001).
- Becking, B., *The Fall of Samaria: An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Study* (Leiden: Brill, 1992).
- Blenkinsopp, J.,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Michigan: Grand Rapids, 2009).
- Cogan, M., *Bound for Exile* (Jerusalem: A Carta Handbook, 2013).
- Eph'al, I., “The Samaritan(s) in the Assyrian Source”, in M. Cogan and I. Eph'al (eds.), *Ab Assyria, Studies in Assyrian History and Ancient Near Eastern Historiography Presented to Hayim Tadmor*,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1), 36-45.
- Koch, I. et al., “Forced Resettlement and Immigration at Tel Hadid”, *Biblical*

*Archaeology Review* 46/3 (2020), 28-37.

- Lang, B., "Elephantine", (RGG<sup>4</sup>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194.
- Lewis, Theodore J.,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Zerubbabel", in *Seeking Out the Wisdom of the Ancients: Essays Offered to Honor Michael V. Fox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308-309.
- Lie, A. G., *The Inscriptions of Sargon II, King of Assyria Part I, The Annals* (Paris: Geuthner, 1929).
- Oded, B., *Mass Deportations and Deportees in the Neo-Assyrian Empire* (Wiesbaden: Reichert, 1979).
- \_\_\_\_\_, "Judah and the Exile", in *Israelite and Judeans History*, ed J. H. Hayes and J. M. Miller (Philadelphia: Westminster, 1977), 435-476, 476-489.
- Porten, B.,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2nd revised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 Rosenberg, S. G., "The Jewish Temple at Elephantine", *Near Eastern Archaeology* 67 (2004), 4-13.
- Stolper, M. W.,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šû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 Tadmor, Hayim, "The Campaigns of Sargon II of Assur: A Chronological Historical Study",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2/1 (1958), 22-40.
- Winckler, H., *Altorientalische Forschungen I* (Leipzig: Verlag von Eduard Pfeiffer, 1898).
- Zadok, R., *The Jews in Babylonia during the Chaldean and Achaemenian Periods according to the Babylonian Sources* (Haifa: University of Haifa, 1979).

검색어

사마리아인, 골라 공동체, 무라슈 문서, 알 야후드, 엘레판틴 파피루스, 디아스포라 유대인

[ ABSTRACT ]

## A Study on the ‘golah’ Community and Diaspora Jews during the Exilic and Persian Periods of Ancient Israel

Hyeong-Geun S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during the exilic and post-exilic periods. It trace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all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as witnessed in the Old Testament, and it also explores, albeit faintly, the lives of the Samaritans and Judeans who lived in the Mesopotamian region. The Northern Kingdom began its period of forced deportation with the attack on Samaria by Tiglath-Pileser III and the fall of Samaria under Shalmaneser V. These people were deported to regions such as Gozan and Halah in Mesopotamia, where they lived in places like Dur-Sharrukin. Some worked as carpenters and potters, while others lived as free farmers, chariot drivers, and accountants. In other words, most of them retained the status of free individuals with freedom in their activities. The Southern Kingdom saw the forced deportation of Judeans intensify with the rise of Nebuchadnezzar II of the Neo-Babylonian Empire. These exiled Judeans formed social alliances or community villages, such as “Bīt-Abīrām” (House of Abraham’s City) and “Āl Yaḥudu” (City of Judah) in the Babylonian region. They lived as free citizens within economic cooperatives called “ḥaṭru.” After the decree of Cyrus, the founder of the Persian Empire, there were at least four distinct return groups from the Babylonian region. Within the post-exilic golah

www.kci.go.kr

community, some groups aspired to restore the Davidic dynasty, while others advoc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iestly nation. During the theocratic period, the authority of the priests grew stronger, and the status of the Levites was elevated. As the prophetic messages of salvation failed, apocalypticism emerged to take their place, leading the golah community toward an eschatological perspective. The lives of Jewish diasporas in Egypt are revealed through numerous papyri discovered in Elephantine. Similarly, the lives of Mesopotamian Jewish diasporas are documented in the prominent Murašû Archive from the Persian period.

key words

Samarian, golah community, Murašû Archive, Al-Yahud, Elephantine Papyrus, Diaspora Jew

투고일 : 2025년 01월 20일

심사일 : 2025년 02월 07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2월 15일

www.kci.go.kr